

트와이스 일본 2집, 오리콘 앨범차트 1위

걸그룹 트와이스의 일본 2집 '&TWICE' (앤드트와이스·사진)가 오리콘차트 1위에 올랐다.



기록을 세웠다. 8연속 플래티넘은 일본 레코드 협회가 출하량 25만 장을 넘은 앨범에 수여하는 인증이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트와이스 일본 2집 '&TWICE'는 19일 자 오리콘 데일리 앨범 랭킹 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트와이스는 일본 최고 권위의 연말 가요축제 NHK 홍백가합전에 3년 연속 출연하는데, 올해 한국 가수로서는 유일하게 초청됐다. 홍백가합전은 한 해를 주름잡은 가수들이 흥타임과 백타임으로 나눠

새 앨범에는 타이틀곡 '페이크 앤드 트루' (Fake & True) 등 10곡이 수록됐다. JYP는 "트와이스의 무한 가능성을 담았다. 또 전 세계 팬들에게 보내는 '언제나 트와이스와 함께'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연을 통해 대항전을 벌이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며 새해를 기다리는 일본인이 많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상징성이 높다.

선공개한 '페이크 앤드 트루'는 현지 라인 뮤직 실시간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트와이스가이 프로그램에 초청된 것은 한일관계가 얼어붙었지만 트와이스의 일본 현지 인기는 견재함을 입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트와이스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한동안 주춤하던 일본 내 한류에 다시 불을 지폈다고도 평가받는다.

트와이스는 2017년 일본 데뷔 앨범 발표 뒤 현재까지 현지에서 발매한 앨범으로 '8연속 플래티넘'

NCT드림, 미 보이그룹 프리티머치와 협업곡 발표

보이그룹 NCT드림(사진)이 미국 보이그룹 프리티머치(PRETTYMUCH)와 협업한 곡이 발표된다.



핀 가수 이니고 파스쿠알 등이 참여했다. 2017년 데뷔한 이후 '티처' (Teacher), '아이스 오프 유' (Eyes Off You), '서머 온 유' (Summer on You) 등을 히트시키며 미국의 '슈퍼 아이돌'로 떠올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NCT드림은 지난 22일 발매된 프리티머치의 새 앨범 '인터내셔널:이피' (INTERNATIONAL:EP)에 수록된 곡 '업 투 유' (Up to You)를 피쳐링했다. '업 투 유'는 싱그러운 피아노 멜로디와 경쾌한 리듬이 돋보이는 곡으로 프리티머치의 개성 있는 보컬과 NCT드림의 청량한 음색이 어우러진 곡이다.

NCT드림은 "평소 프리티머치의 노래를 즐겨 듣는데 앨범에 참여하게 돼 정말 즐거웠다"고 말했다. 프리티머치는 "훌륭한 K팝 아티스트 NCT드림과의 협업이 기쁘다. 신곡 '업 투 유'에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인 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실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프리티머치는 원 디렉션의 제작자로 유명한 사이먼 코웰이 프로듀싱한 5인조 보이그룹으로 이번 앨범에는 NCT드림 뿐 아니라 라틴계 보이그룹 CNCO, 브라질 싱어송라이터 루이사 손자, 필리

NCT드림은 2016년 '추잉검' (Chewing Gum)으로 데뷔했으며 빌보드가 선정한 '올해의 21세 이하 아티스트 21'에 아시아 가수 최초로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김건모, 결혼식 연기 혼인신고부터



가수 김건모(왼쪽),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오른쪽)이 결혼에 앞서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모 측은 21일 "김건모와 장지연 예비 부부가 최근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결혼식을 5월로 미뤘으나 이미 결혼이 예정된 만큼 미리 혼인신고를 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김건모와 장지연은 양가에서 가까운 친지들 50명만 초대하는 '스몰 웨딩'을 계획했다. 그러나 결혼을 축하하고 싶다는 주변 요청이 쏟아졌고, 두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자리할 수 있도록 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결혼식을 5월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김건모의 결혼 소식은 지난달 말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됐다. 김건모와 예비 신부 장지연, 유명 작곡가로 활동한 장인 장욱조 목사가 모두 '뮤지션'이라는 공통분모라는 점도 주목받았다.

김건모는 장욱조 목사의 히트곡 '왜 몰랐을까'를 리메이크할 예정이며, 신곡도 함께 의논하고 있다고 장목사는 전했다. 장목사가 작사·작곡한 '왜 몰랐을까'는 그가 활동하던 그룹 '장욱조와 고인돌'이 1979년 발표한 곡이다.

1291호 숫자퍼즐 정답								
5	8	1	6	9	2	7	4	3
9	7	3	1	8	4	5	2	6
4	6	2	3	5	7	9	8	1
1	3	4	5	2	6	8	9	7
8	5	9	7	4	3	6	1	2
6	2	7	8	1	9	3	5	4
7	1	8	2	6	5	4	3	9
3	4	5	9	7	1	2	6	8
2	9	6	4	3	8	1	7	5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타고난 팔자(八字)에 부족하다는 것은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팔자에 무엇인가 꼭 필요한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로 볼 때에는 참으로 넘기 힘든 한계로서 작용하게 된다. 자신에게 필요한 기운(氣運)이 일시적으로 운(運)의 흐름에서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랫동안 지켜내기가 힘들고 시간이 흘러 운(運)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 결국 원래 자신에게 없던 상태로 복귀하기 때문이다. 오래 전에 팔자가 40대의 부인과 남편 문제로 상담한 적이 있다. 남편과는 어려서 만나 일찍 결혼을 했고 자식을 두었지만 남편은 평생동안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해보거나 생활비를 제대로 벌어들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자신이 벌어서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런 남편이 그냥 암전히 있어주지만 해도 괜찮은데

이제는 바람까지 피우고 다니면서 속을 썩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고자 찾아온 것이다. 팔자가 부인의 사주를 보면서 건넌 이야기는 "부인의 타고난 팔자를 보면 남편에 해당하는 기운이 매우 미약한 사주가 되지만 그래도 자식복은 있는 팔자가 됩니다. 부인이 어린 나이에 그래도 배우자에 해당하는 기운(氣運)을 만나 지금의 남편과 인연을 맺었고 자식을 낳았으니 그래도 자식들로 인해 먹을 복이 탄탄해지는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된 것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부인의 팔자도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의 팔자 자체가 남들과 같은 원만한 남편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팔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이혼할

것인가는 부인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부인이 타고난 팔자 자체가 남편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팔자가 아니라 자식이 부인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사주가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조언해 주었지만 팔자가 보기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될 것이고 훗날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 자신에게 없는 남편복을 제대로 받지는 못하게 될 것이고 훗날 또 헤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그 부인이 결국 이혼을 했다고 한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론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예약 필수 714.534.4645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